

관산성전투

백제와 신라의 운명을 가른 싸움



관산성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1 개요

관산성(管山城) 전투는 554년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전투이다. 신라가 나제동맹을 파기하고 백제의 한강 유역 탈취로 인해 발생하였다. 신라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한강 유역에 대한 영유권을 분명히 하였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하였다.

2 백제의 한성 상실과 국가의 재건

백제의 수도 한성(漢城)은 475년(개로왕 21) 9월 고구려의 3만 병력에 포위되었다. 1년 전 백제 개로왕(蓋鹵王)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고구려군은 사방으로 군사를 나누어 공격을 하였고 바람을 이용해 성문에 불을 질렀다. 백제 사람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하였지만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중 개로왕이 기병 수십 기와 함께 도주를 시도하다가 붙잡혀 아차성(阿且城) 아래로 끌려가 살해당하였다.

개로왕의 아들, 혹은 동생으로 전하는 문주(文周)는 한성이 공격당하자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황급히 신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1만 명의 병사를 얻어 돌아왔을 때 한성은 이미 파괴되었고 고구려군은 물러간 뒤였다. 문주는 폐허가 된 도성 위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왕위에 올라야 했다. 그리고 곧바로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시에 해당하는 웅진(熊津)으로의 천도를 결정하였다.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군사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웅진은 고구려와의 국경으로부터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북쪽을 흐르는 금강과 주위를 둘러싼 산지 때문에 방어에 매우 유리한 곳이었다. 그러나 웅진 시대의 백제는 한성 함락의 충격을 오래도록 떨쳐 내지 못했다. 본거지를 잃고 쫓겨 내려온 왕에게 지방의 귀족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이 있을 리 없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왕을 경시하는 신하들이 있어도 이를 제어할 수 없었다. 결국 문주왕은 재위 3년 만에 병관좌평 해구(解仇)에게 목숨을 잃었다.

새로 왕위에 오른 삼근왕(三斤王)은 나이 13세에 불과하였다. 국정을 농단하던 해구가 반란을 일으키자 진씨(眞氏) 가문의 힘을 빌어 진압하기는 하였으나 삼근왕 역시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삼근왕의 사인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나, 그의 이른 죽음 역시 의심스러운 면이 적지 않다. 삼근왕의 사후 왕위에 오른 동성왕(東城王)은 23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백제의 재건에 힘을 쏟았지만 신하인 백가(昔加)에게 살해당했다. 무령왕(武寧王)은 왕을 시해하고 반란을 일으킨 백가를

제압하고 처형, 경시한 백제로서 백제의 재건은 더욱 더 어려워졌다. 또한 조그마한 나그네가 아/...